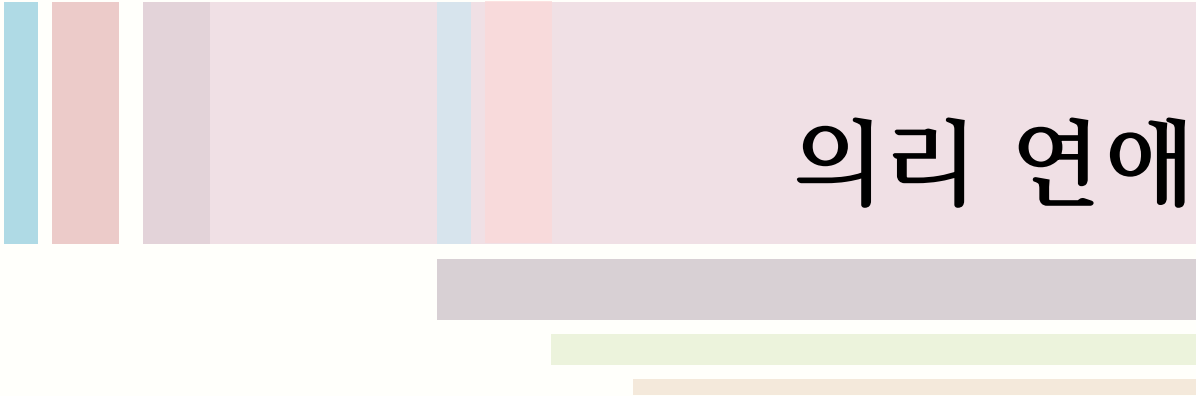


의리 연애

'의리 연애'형에 속하는 당신은 서로에 대한 막연한 믿음과 편안함으로 이루어진 연인 관계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연애에서 서로 간의 성적인 교감이나 신뢰라 하는 편안함, 또 서로의 관계에 대한 나름의 책임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과거에는 신체와 몸이 가까워 진 데 대한 '책임'이 의리 연애의 핵심이었지만, 지금은 '편안함'과 '친숙함'이 더 중요합니다. 관계의 지속성이 가지는 힘은 당신에게 강하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상대를 수용하고 인정한다고 할 수도 있지요. 오랫동안 함께했음이 당신과 연인 사이에 특별한, 운명적인 유대가 있는 것처럼 느끼도록 하고, 당신의 연애 감정을 강화시킵니다. 또, 당신을 좋아하는 사람은 당신을 버리지 않을 것 같기에 그 사람을 좋아하는 마음이 생기기도 합니다. 당신은 성행위를 서로 익숙한 관계를 유지하는 도구라고 보기도 하죠.

당신이 여자라면 나쁜 남자를, 남자라면 나쁜 여자를 만나고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상대방이 당신을 실망시키거나 나쁜 짓을 해도 '내 잘못도 있어'라면서 스스로 이해를 하려 합니다. 관계에서 발생하는 문제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따지기 보다는, 만남을 유지하는 것에 의미를 둔답니다. 연애를 하는 동안 비슷한 유형의 문제가 계속 발생할 수 있지만, 항상 상대방에 대한 이해와 수용, 그리고 자신이 가진 감정의 희생을 통해 관계가 잘 유지가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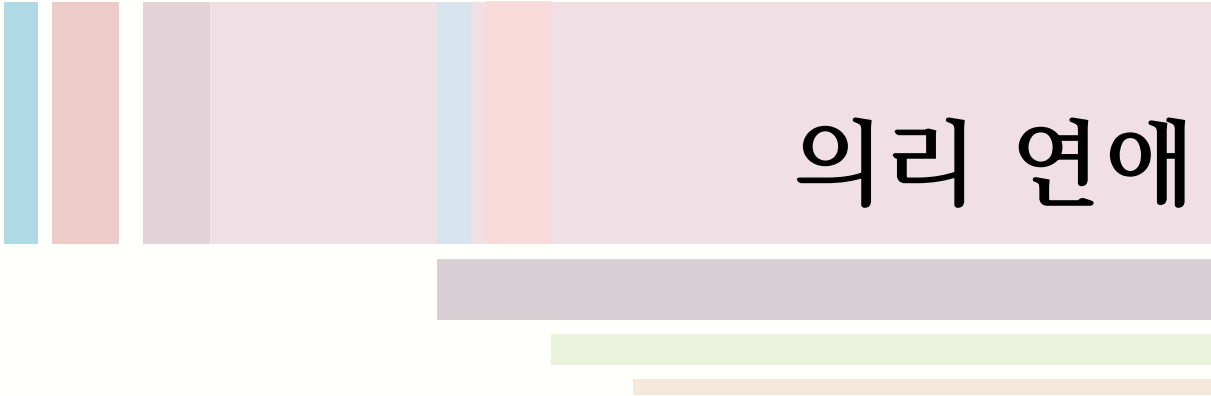
지금 연애가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당신은 여러 이유로 관계를 깨지 않습니다. 오랜 친구와의 관계를 깨는 것 같은 두려움이나 죄책감이 들기 때문일 수도 있죠. 또는, 자신이 바라는 연애가 무엇인지, 연인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몸을 허락한 사람과는 끝까지 함께해야 한다는 믿음 때문에, 혹은 다른 더 나은 사람이 없기 때문일 수도 있고요. 어쨌면, 자신에 대한 남들의 시선 때문에 관계를 유지하고 있을 가능성도 있겠군요.



의리 연애

당신의 복잡한 마음은 '이 사람보다 좋은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하는 생각으로 얼룩져 있을 수도, 이별의 과정과 정작 이별이 왔을 때 자신이 어떻게 될 것인지가 두려운 것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당신은 처음으로 연애를 해보는 사람일 수도 있겠군요. '그 놈의 정 때문에' 헤어지지 못한다는 신파조의 푸념을 하게 되더라도, 이미 서로의 만남은 운명이기에 깨어지는 것조차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왜' 지속하는지에 대해 자신조차 모를 수 있습니다. 자신이 연인과 함께 할 때 행복한지조차 알 수 없는 관계를 유지해 나가면서 스스로가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가끔 다른 연애를 꿈꾸기도 하지만, 도덕성을 내세우며, 그리고 자신의 생활에 올 수 있는 변화에 대한 두려움 속에 마음을 억누릅니다. 만약 상대방에게서 현재 유지하고 있는 연애 양상에 변화를 가져올 만한 낌새를 눈치챈다면 불안 속으로 빠져들 것입니다. 만약 현재 연인이 있다면 '이 사람은 내가 누군지 알긴 할까?'하는 소외를 느낄 수도 있습니다.

당신에게는 '만남이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중요하기 때문에 만남 자체는 알콩달콩하기 보다는 밋밋합니다. 연락을 자주 하지 않고, 당신과 당신의 연인은 각자 생활하며 공유하는 부분도 적습니다. 또, 오래 만났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어떤 개성을 가진 사람인지 혹은 최근에 하고 있는 고민이 무엇인지는 잘 알지 못할 확률이 높습니다. 반면, 당신의 연인이나 연애에 대한 적이 나타났을 때에는 둘의 관계가 더욱 돈독해지면서 사랑을 확인한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의리 연애

현재 연애 중이라면, 현재 관계에서 부족하다고 느끼는 점이 무엇인지 자신의 생각을 연인에게 조금 더 솔직하고 적극적으로 말하는 용기를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깊은 관계를 가졌다고 해서 둘 사이의 헤어짐이 세상의 종말은 아니라는 사실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 자신과 상대방의 특성에 대해서 더 잘 안다면 혹시나 헤어지는 결정을 하더라도 선택에 대해 자신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성격 검사(WPI)’를 통해서 자신이 누구인지 먼저 성찰해보시기를 권합니다. 아직 연애를 하고 있지 않다면 자신의 감을 조금 더 믿고, 즉흥적으로 좋아지는 사람과 가까운 관계를 형성해보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